

# 학교 가정 통신문을 활용한 여성결혼 이민자 대상 독해 자료 구성 방안 연구

고은미(전주대학교)

##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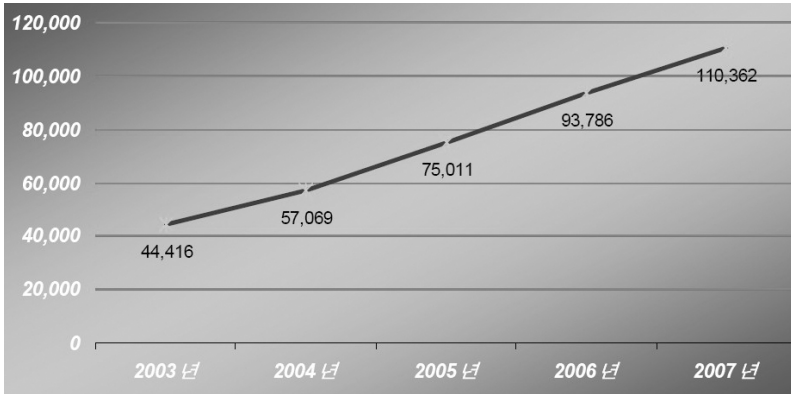
2007년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주요 체류 자격의 연도별 변화 추이는 유학생, 취업목적 근로자, 결혼이민자 순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유학생과 취업 목적 근로자들은 국내에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고 일정한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출국하고자 하는 단기 체류자들이 대부분이다.

그에 반해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구적으로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들이다. 따라서 이들 결혼이민자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내 정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 통합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이주여성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센터

가 감소되었다.1) 중앙 정부의 지원 이외에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결혼이민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표 1> 연도별 결혼이민자 증가 추이<sup>2)</sup>



여성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이상과 같은 지원은 학계와 연계되어 더욱 체계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동안 유학생과 연수생 교육에 집중했던 대학에서도 점차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정착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sup>3)</sup>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국제

1)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에 80개소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http://www.mogef.go.kr>).

2) <http://www.immigration.go.kr>(2007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참조.

3) 2008년 국립국어원 지정 국어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는 전국12개 대학(경상대학, 동아대학, 상명대학, 영남대학, 경북대학, 이화여자대학, 전남대학, 청주대학, 충북대학, 전주대학, 강원대학, 제주대학)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지원을 받아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문화 이해교육,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문화 강사 양성과정,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바 있다. 대학 기관의 한국어 프로그램의 장점은 기존 타 기관의 교육에 비해 교육자의 전문성이 높고 한국어 교육 시수가 월등하게 많다는 점이다. 더불어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재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연구 인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타기관보다 앞선 점 중 하나이다.

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은 대다수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적을 취득하여 정착한다. 다문화 가정의 가족 구성원이 된 이들 이주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육아와 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목적으로 입국하는 이주 노동자나 유학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유학생·연수생들과는 다른 한국어 교육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전까지는 주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교재 개발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시판되고 있는 교재의 대부분은 국내 대학 수학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sup>4)</sup> 때문에 초기에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유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어 교재로 공부해야 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정부 주도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 현장에 보급되었다.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 현장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 등에서 제작한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각 대학을 비롯해 지자체와 민간단체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교육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는 다음과 같다.

4) 현재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시판되고 있다(박영순, 2003: 171).

- 영역별: 회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듣기, 읽기-쓰기, 문화, 어휘
- 지역별: 한국, 일본, 중국, 북미, 호주, 유럽, 아시아, 우즈베키스탄
- 국적별: 한국인, 외국인, 기타
- 수준별: 초급1·2, 중급1·2, 고급1·2, 최고급, 한국어학 과정
- 성격별: 교실에서의 교수 학습용, 자습용, 교사용, 인터넷용
- 위상별: 주교재용, 부교재용, 과제용, 평가용, 워크북
- 목적별(기능별): 관광용, 교양용, 특수목적용(인문, 외교, 통상, 군사 등), 어린이용, 중고생용, 대학학습용, 한국학전공자용, 한국어교사용 등
- 언어권별: 영어권, 중어권, 일어권, 불어권, 독어권, 노어권 등

<표 2>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

번호	서명	발행기관	출판사	발행연도
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 우리 엄마의 한국어(초급)	농림부 한국어세계화재단	신명기획	2007
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사 지침서 - 우리 엄마의 한국어	농림부		
3	1000단어로 배우는 한국어 초급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어 교육 개발원	2006
4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한국어세계화재단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	한성기획	2007
5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첫걸음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	도서출판 역락	2007
6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초급	여성가족부	누리 미디어 플러스	2005
7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중급	여성가족부·국립국어원	도서출판 역락	2007
8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	도서출판 역락	2007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와 관련해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지역별 한국어교육 실태 및 방문교육방안 연구>(2007)에서 교재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하고 있다. 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재만큼 수준별로 등급화되어 있지 않고, 영역별·기능별로 세분화되지도 않은 상태다. 아직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 초기 단계란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양과 질적 수준은 유학생 대상 교재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07년 농림부의 '농촌 방문교육도우미' 활동에 참여해 한국어 교육을 담당했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sup>5)</sup>

<표 3> 국제결혼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자의 교재 만족도 조사 결과

			교재 적절성		전체
			예	아니오	
한국어 교육자 대상	전북	빈도	4	12	16
		한국어 교육자 대상 의 %	25.0%	75.0%	100.0%
	충북	빈도	9	4	13
		한국어 교육자 대상 의 %	69.2%	30.8%	100.0%
	경북	빈도	4	11	15
		한국어 교육자 대상 의 %	26.7%	73.3%	100.0%
전체	빈도	17	27	44	
	한국어 교육자 대상 의 %	38.6%	61.4%	100.0%	

한국어 교육자 대상 교재 만족도에 관한 이상의 조사 결과는 현장 교육자들과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재 개발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연구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연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5)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원이 2007년 국립국어원의 용역을 받아 시행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지역별 한국어교육 실태 및 방문교육방안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3. 학교 가정 통신문을 활용한 독해 자료 개발의 필요성

본 연구자는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듬해 2008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했다.<sup>6)</sup> 2007년 한 해 동안의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방문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은 이전 논문을 통해 개괄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sup>7)</sup>

농촌 현장에서 한국어를 교육하면서 본 연구자는 대학 부속 기관에서 시행되는 유학생이나 연수생 대상 한국어 교육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학 부속 기관이나 학부 혹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등의 언어 기능을 분야별로 균형적이고 단계적으로 교육받기 때문에 기능별 실력 차이가 크지 않다.<sup>8)</sup> 그러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말하기와 듣기의 유창성은 뛰어나지만 문법, 읽기와 쓰기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sup>9)</sup>

---

6) 본 연구자는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3회 3가구를 방문하여 3인의 초급 학습자들(베트남)에게 1시간씩 한국어를 교육하였다. 그리고 2008년 5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 순창군청 청소년 회관에서 2시간씩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했다. 2007년은 개별 가구를 방문하여 지도하는 1대1 방문 교육이었고, 2008년에는 중·고급 학습자(일본, 중국, 몽골)들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진행했다.

7) 줄고(2008).

8) 간혹 중국 조선족 학생들의 경우 말하기에 비해 쓰기와 읽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유학생이나 연수생들의 경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표현과 이해 영역에서 균등한 숙달도를 보여 준다.

9) 실제로 본 연구자가 방문 교육을 했던 순창군 북흥면 석보 마을에 살고 있는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1996년 입국)의 경우 모국어 화자에 견줄 만큼 한국어 말하기 능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면허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1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필기시험에 도전했지만 매번 떨어져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그런데 본 연구자가 교육했던 같은 마을의 베트남 여성(2006년 입국)은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다. 물론 그 베트남 학습자가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필리핀 여성보다 현저히 뒤떨어진다. 그럼에도 면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방문 교육을 통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각 영역을 고르게 학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운전 면허 필기 시험의 경우는 특히 독해 능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필리핀 여성의 독해 능력 부진은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분야별(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예도 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캄보디아 여성이 이혼 당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고향으로 쫓겨 간 일이 있었다. 이 여성의 경우는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검사결과 심장

여성결혼이민자들을 교육하다 보면 이들이 직접 교육자들에게 요구하는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게 된다. 그 중 본 연구자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학교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문이나 통신문에 대한 이해 요구이다. 정착 초기에는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지만 1-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여성들의 경우는 다양한 독해 자료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 출산과 더불어 육아와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농촌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서 보내오는 가정 통신문을 읽지 못해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다.<sup>10)</sup> 실제로 지난 해 본인이 가르쳤던 베트남 학습자도 어린이집에서 오는 가정 통신문을 해독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며 본 연구자에게 해석을 부탁하곤 했다.<sup>11)</sup>

이러한 현장의 요구는 실제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자료를 개발할 때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보내오는 가정통신문을 활용할 필

---

질환이 있어 출산과정에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놀란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국어 어를 모르는 여성에게 이혼 서류의 내용을 알리지 않고 도장을 찍도록 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면서 동시에 한국어 능력의 정도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권리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순창군 석보 마을의 이 두 사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의사소통 능력만큼이나 독해 능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유학생이나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와 마찬가지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도 각 분야별로 세분화해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앞서 예로 든 필리핀 이주여성과 같은 분들을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을 위한 독해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10) 실제로 본인이 가르쳤던 베트남 학습자의 경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 가져오기 시작한 가정통신문을 해독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다. 또한 아이의 어린이집 생활을 적어주는 알림장을 읽고 싶은 욕구가 강했는데, 한국인 선생님의 글씨를 알아보기 못해서 항상 남편의 대독을 통해서 알림장의 내용을 파악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11) 2008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순창 군청에서 실시한 한국어 교육의 경우 교육생의 80%가 일본인들이었다. 이들의 경우 통일교 신자들이 대부분인데, 여타 동남아 학습자들과 달리 학력 수준이 높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이들에게 학교 가정통신문 해독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묻자 100%가 어려움이 많다고 대답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질문에 준비물 같은 것은 문방구에 가서 가정통신문을 보여주고 해결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 외에 것들은 자신보다 먼저 온 선배 이민자에게 묻거나 아예 해석을 포기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정 통신문에 나오는 단어들은 사전을 찾아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예를 들어 유아 교육 현장에서 자주 이용되는 레고 놀이나 가베 활동 같은 경우, 사전을 찾아도 '레고'와 '가베'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전에는 이러한 어휘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

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가족 구성원을 비롯한 남편의 교육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학교 가정통신문의 해독 불가능성은 한국 생활에 대한 좌절감과 아이에 대한 미안함을 가중시키고 동시에 유아 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린다. 이러한 현상의 지속은 어머니의 역할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교육을 매개로 한 학부모 활동으로부터 이들을 소외시키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곧 이들의 성공적 사회 정착의 지연이다. 가정통신문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학하면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주 지속적으로 배달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아교육학회의 가정 통신문을 활용한 유아 교육과 부모 교육 관련 연구 논문은 가정 통신문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장성희(2001)는 매주 1회씩 가정 통신문을 전달하여 유치원의 기본 생활 습관 교육에 부모(주로 어머니)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실험 집단의 유아들이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유아들에 비해 전체적인 부분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었음을 들어 유아 교육에 있어서 가정 통신문의 효과에 주목한다. 또한 한길연(2002)과 이민자(2007)의 연구는 가정 통신문을 활용한 부모 교육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 행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신념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sup>12)</sup> 가정 통신문과 관련한 이상의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 가정 통신문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12) 한길연(2007)은 가정 통신문을 활용한 부모 교육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정 통신문을 활용한 부모 교육은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둘째, 가정 통신문을 활용한 부모 교육과 함께 교사가 승환 효과를 줄 때 부분적으로나마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셋째, 가정 통신문을 활용한 부모 교육은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효과적이며 여아보다 남아의 어머니에게 더 효과적이었다. 넷째,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가정 통신문을 활용한 부모 교육 내용을 잘 읽고 있으며 어머니-자녀와의 관계에 도움을 받고 있다. 다섯째, 가정 통신문을 활용한 부모교육은 어머니들에게 자녀 이해, 부모의 양육 태도 변화, 어머니-자녀와의 긍정적 변화, 대화 시간, 방법, 태도에 변화를 갖게 했다. 여섯째, 가정 통신문을 활용한 부모 교육은 어머니들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게 하며 부모의 태도를 고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게 하였다.

어 교재는 학교 가정 통신문과 관련한 형식과 내용 및 어휘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유치원(어린이집 포함)의 가정 통신문을 중심으로 독해 자료를 구성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는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현장의 요구를 수용함과 동시에 다문화 가정에서 양육자이면서 동시에 교육자가 되어야 하는 이들 여성들의 역할을 지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다문화 가정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독해 교재 개발의 한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차후 본 연구를 초·중·고등학교 가정 통신문까지로 확대하고자 한다.

#### 4. 어린이집 가정 통신문의 종류와 구성

가정 통신문은 부모 교육을 위한 간편한 방법의 하나로서 유아 교육 기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모 교육 방법이다. 가정 통신문은 가정을 대상으로 서신을 통하여 교류하는 형태로 부모와 교사가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문서를 통해 연락함으로써 간접적인 유대를 갖는다. 유아 교육 기관에서는 부모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통신문으로 작성하여 각 가정으로 전달하고, 가정에서는 정보 교환이나 궁금증에 관한 사항을 유아 교육 기관에 전달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모 교육 방법이다(김현주 외, 2000).

가정 통신문은 유아 교육 기관 소개 책자와 같이 연간으로 발간되는 것, 유아 교육이나 부모 교육의 계획, 운영을 부모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월별, 주별로 발행하는 것, 그리고 유아 교육 기관이나 부모들의 필요에 의해 수시로 발간하는 것 등으로 다양하다(김신재, 1986). 메모, 편지, 주생활 계획표의 안내 등도 가정 통신문의 한 형태이며(이재연, 김경희, 1989) 최근에는 ‘부모를 위한 코너’를 만들어 자녀 교육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정갑순, 1998).

가정 통신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이연섭, 강문희, 1997). 첫째,

유아 교육 기관의 생활을 부모에게 알려주기 위한 ‘주생활 계획 가정 통신’이다. 주로 유아 교육 기관에서 다음 주의 교육 계획이나 가정에서 유아에게 준비시켜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하며 매주 주말에 유아를 통해 발송된다. 둘째, 유아의 특별한 문제 행동이나 생활 태도에 관한 유아 교육 기관과 가정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학교-가정 통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아 교육 기관에서는 대체로 매주 활동 계획과 부모의 준비물 및 공지 사항을 담은 가정 통신문을 부모들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이혜심, 1997).

가정 통신문의 내용은 유아 교육 기관의 최근 교육 내용 관련 정보, 유아 교육 기관의 특별 활동 및 행사 관련 정보, 유아 교육 관련 정보, 부모의 성장 및 가정 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 명절이나 휴일을 나타내는 일러스트레이션, 부모가 유아 교육 기관으로 유아의 가정에서의 생활 태도, 요구 사항, 의견 등을 적어 보낼 수 있는 반송란 등으로 구성된다(김현주 외, 2000).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매주 들고 오는 가정 통신문의 대부분은 주간 계획안이다. 주간 계획안의 구성은 활동 주제와 소주제, 활동 목표, 활동 영역과 요일별 활동 내용, 실외 자유 선택 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기본 생활 습관, 안전 교육, 식단표와 새 노래, 동시, 가정 통신문 등으로 구성된다.<sup>13)</sup>

자유 선택 활동의 경우 언어 영역, 수·조작 영역, 쌓기·역할 놀이 영역, 미술 영역, 과학 영역, 음률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대·소집단 활동의 경우 이야기 나누기, 음률·신체 활동, 동화·동극으로 세분화하여 요일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소개한다. 그런데 자유선택 활동과 대·소집단 활동에 나타나는 어휘들, 예를 들어 ‘수·조작, 음률, 장승 서열, 역할, 영역, 동시, 동극 등’ <표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지 않는 빈도수가 매우 낮고 난이도가 높은 어휘들이 대

---

13) 가정 통신문의 전체 구성은 부록을 참고하도록 한다.

부분이다. 따라서 자유 선택 활동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휘 교육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정 통신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 가정통신문 주간 계획안 구성의 예 ①

		1(월)	2(화)	3(수)	4(목)	5(금)	6(토)
자유선택활동	언어 영역	❖ 우리나라 한글		❖ 탈 이름 지어주기			
	수·조작 영역	❖ 장승서열		❖ 통나무 쌓기			
	쌓기, 역할 놀이영역	❖ 사대문 만들기					
	미술 영역	❖ <오리고 붙이기> - 예쁘게 머리를 꾸며줘요. ❖ <동물 그리기> - 나는 누구일까요?					
자유선택활동	과학영역	❖ 지구본을 돌려요.					
	음률영역	❖ <우리나라 꽃> 노래 부르며 율동하기					
	이야기 나누기	<안 전 교 육> 안전벨트를 착용해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들	보건소로 흡연 및 영양교육을 갑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자율등원
음률, 신체활동	<새노래> 우리나라꽃	<게임> 대문놀이	<신체> 애 국가를 스카프로~		<게임> 태극기 돌아오기		
동화, 동극	<전래 동화> 나무 도령	<동시> 나라사랑	<테마 동화> 반짝반짝 도깨비	<옛 이야기> 나라를 구한 어머니의 지혜	<테마 위인> 세종대왕		



이상의 고찰은 가정 통신문을 활용해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독해 자료를 구성할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 어휘 교육에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가정 통신문을 활용한 독해자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통계화해 고빈도 어휘를 추출, 단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담임, 원장, 원감, 자율 등원’ 등의 어휘는 난이도가 매

우 높은 어휘이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학함과 동시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고빈도 어휘들이기에 초급 단계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주목할 사항은 가정 통신문의 다양한 구성 내용이다. 가정 통신문에는 계절, 년, 월, 일, 요일, 요일의 경우 국경일·기념일·명절 등이 휴원 안내와 함께 제시된다. 따라서 년, 월, 일 등의 날짜와 요일이 제시된 주간 계획안을 활용한다면 숫자와 요일 등 초급 단계에 필요한 기초 어휘를 교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경일·기념일·명절과 관련한 문화 교육을 병행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가정 통신문을 활용하되 이를 재구성한 독해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표 5>에 제시된 주간 계획안을 살펴보면 5월 5일 ‘어린이 날’과 5월 8일 ‘아버지 날’이 안내되어 있다. 하지만 내국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작된 주간 계획안에는 이러한 기념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러한 기념일의 의미와 특성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독해 교재를 구성할 경우에는 기념일의 의미를 보다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5> 가정통신문 주간 계획안 구성의 예 ②

		5(월)	6(화)	7(수)	8(목)	9(금)	10(토)
대 소 집 단 활동	이야기 나누기	☆ 어린이 날 ☆ 	<안전교육> 안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나는 점점 자라요.	아버지날의 의미	 봄소풍 (대전동물원) 준비물: 도시락, 간식, 물, 음료수	자율 등원
	음률, 신체활동		<새노래> 나는 나는 자라서	<게임> 몸을 부딪쳐 보세요.	<신체> 난 얼굴로 말해요.		
	동화 동극		<테마동화> 욕심이와 수리수리 박사	<동시> 나는 자라요.	<그림동화> 투덜이 여진이		



## 5. 독해자료 구성의 실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초급 읽기

제○과 우리 아이는 오늘 무엇을 먹어요?

우주는 여섯 살이에요.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우주는 오늘 처음 엄마와 함께 어린이집에 가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하고 친구들을 만나요.

친구들하고 점심도 먹어요.

어린이집 점심과 간식은 아주 맛있어요.

○○ 어린이집 식 단 표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점심	보리밥 감자채소전 버섯야채볶음 구이김	흑미밥 생선까스 부추겉절이 김치	현미밥 감자볼 계란찜 각두기	잡곡밥 불고기 멸치볶음 김치	볶음밥 김치
	콩나물국	두부된장국	생합미역국	오징어무우국	맑은장국
간식	씨리얼 우유	떡볶이 우유	크림모닝빵 주스	핫케익 요구르트	생과일

□ 새단어를 공부해요.

점심(午飯·午餐), 간식(點心), 밥(飯), 보리(麥), 흑미(黑米), 현미(玄米), 잡곡(雜糧), 볶음밥(炒飯), 감자(土豆), 채소(蔬菜), 전(餅), 버섯(蘑菇), 야채(蔬菜), 김(紫菜), 콩나물(豆芽), 국(湯), 씨리얼(麥片), 우유(牛奶), 생선까스(炸魚排), 부추(韭菜), 겉절이(暴腌川咸菜), 김치(泡菜), 두부(豆腐), 된장(大醬), 떡볶이(炒年糕), 계란찜(蛋羹), 각두기(泡蘿卜塊), 생합(大蛤), 미역(裙帶菜), 크림(奶油), 모닝빵(面包), 주스(果汁), 불고기(烤肉), 멸치볶음(炒海蜒), 오징어(魷魚), 무(蘿卜), 핫케익(臥夫餅), 요구르트(酸奶), 맑은장국, 생과일(水果)

□ 다음 글을 읽고 대답하세요.

1. 우주는 월요일 점심에 무슨 밥을 먹어요?

- ① 보리밥      ② 흑미밥      ③ 현미밥  
④ 잡곡밥      ⑤ 볶음밥

2. 우주는 월요일 점심에 무슨 반찬을 먹어요?

- ① 김치              ② 깍두기      ③ 불고기  
④ 감자채소전      ⑤ 부추겉절이

3. 우주는 누구하고 같이 어린이집에 가요?

- ① 아빠      ② 엄마      ③ 할머니  
④ 할아버지      ⑤ 삼촌

4. 볶음밥은 무슨 요일에 먹어요?

- ① 월요일      ② 화요일      ③ 수요일  
④ 목요일      ⑤ 금요일

5. 다음 글을 읽고 맞으면○ 틀리면× 하세요.

- ① 월요일에는 버섯야채볶음을 먹어요.      ( ○ )  
② 화요일에는 흑미밥하고 생합미역국을 먹어요.      (   )  
③ 수요일에는 현미밥과 계란찜을 먹어요.      (   )  
④ 목요일에는 쌀밥과 불고기를 먹어요.      (   )  
⑤ 금요일에는 생과일과 우유를 먹어요.      (   )

6. 위 그림에서 목요일 간식을 찾아서 쓰세요.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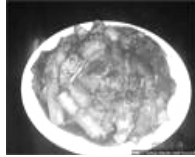
7. 다음 그림을 맞게 연결하세요.

① 흑미밥



② 생선가스

○



③ 떡볶이

○



④ 씨리얼

○



⑤ 구이김

○



## 6. 독해 교재 구성의 의미와 기대 효과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현장에는 정부 각 부처에서 제공한 한국어 교재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말하기 중심으로 교재가 편중되어 있고, 듣기의 경우는 아예 교재에서 제외되어 있는 형편이다.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읽기/독해 구성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정 통신문을 활용한 독해자료를 제시해 보았다. 물론 이와 같은 독해 자료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는 현장에서 적용을 한 후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sup>14)</sup>

한편 본 연구자가 제시한 초급 독해 자료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 곧바로 실생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여성결혼이민자가 임신과 출산을 거쳐 아이를 낳아방이나 어린이집에 맡기기까지는 최소 2년에서 3년까지의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각 지자체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정한 한국어 교육의 수혜자라면 중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예상한다면 가정 통신문을 활용한 독해 교재는 중급 수준부터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대학 유학생이나 한국어 연수생과 달리 매일 한국어 교육을 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체류 기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급 단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앞서 문제 제기에서 다룬 것처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각 영역별 균형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이들을 위한 독해 자료는 초급 단계부터 점차 중급과 고급 단계로 구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급 단계에서는 담화 이해를 목적으로 한 어휘 교육과 기본

---

14) 본 연구자는 2008년 5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순창군청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 사회적응 교육>의 일환인 '한국어 교육'의 중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가정 통신문을 활용한 독해 수업을 진행한 바 있다.

문형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중급 이후부터는 요리, 문학, 음악, 한자 등을 활용한 문학과 문화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독해 교육과 더불어 가정통신문의 ‘반송란’을 활용한 ‘쓰기’ 교육을 병행할 경우 언어 기능 간 통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가정 통신문을 활용한 독해 교재가 개발된다면 한국어와 관련한 여성 결혼이민자 개인의 교육적 효과 이외에도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정 통신문을 활용한 독해 자료를 통해 매주 자신들에게 전해지는 가정 통신문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유아 교육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학부모 교육과 관련한 여러 정보들을 받아들여 양육 태도와 방법을 개선할 수도 있고, 교사로서의 부모 역할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다. 더불어 아이는 엄마와 함께 동요를 부르면서, 사자성어를 공부하면서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가정 통신문을 활용한 독해 자료는 정부기관과 각 지자체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한국어 교재의 개발과 보급은 확대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들의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다문화 가정 내의 갈등 해소와 사회 화합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각 대학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 관련 교육 자료와 수업 모형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승혜(2003),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분석, *한국어교육* 14(1).
- 강승혜(2005), *교육과정의 연구사와 변천사*, 민현식·조항록·유석훈·최은규 편, *한국어교육론* 1, 서울: 한국문화사.
- 고은미(2008),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 방안 연구-전북지 기관별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문학*44집.
- 김영규(2005a), 외국어 텍스트 수정 연구가 한국어 읽기 및 듣기 교재개발에 시사하는 점, *이중언어학* 29.
- 김영규(2005b), 연구 유형 분류를 통한 한국어교육학 연구의 경향 분석, *한국어교육* 16(3).
- 김은주(2001),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위상 정립과 학문으로의 미래 조망,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25/26.
- 김인규(2003),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 요구 분석 및 교수요목 개발, *한국어교육* 14(3).
- 김진완(2004), 한국과 세계의 영어교육 연구방법론과 연구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의 영어교육 현장에의 시사점, *영어교육* 59.
- 김진완(2006a), 외국어교육의 연구방법론: 연구방법의 유형과 연구성향, 2006년 4월 15일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삼성교육관에서 개최된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2006년도 제25차 춘계 학술대회 주제 특강 논문.
- 김진완(2006b), 한국 영어교육의 연구동향과 과제: 연구방법, 연구성향 및 연구주제, *영어교육* 61(특별호).
- 김지영(2001), 한국어 작문의 상호협력적 교수-학습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숙(1996), 담화능력 배양을 위한 읽기 교육 방안, *한국말 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정숙(1999), 담화능력 배양을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0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정숙(2003), 통합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제 14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농림부(2007), 농촌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사 지침서-우리엄마의 한국어, 시명기획.
- 농림부(2007), 농촌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우리엄마의 한국어(초급), 시명기획
-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 통합지원대책.
- 박수자 외(1999), 읽기수업방법, 초등국어교육학회, 박이정.
- 박수자(1992), 읽기 교재에 수록될 '글(text)'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2, 국어교육학회.
- 박수자(1994), 독해와 읽기 지도, 국학자료원.
- 박수자(1995), 독해전략의 유형과 지도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89권,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박수자(2001), 읽기지도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영순(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월인.
- 박영순(2002),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국문화사.
- 박영순(2002), 한국어 교육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21세기 한국어 교육학의 현황과 과제(박영순 편), 한국문화사.
- 박영순(2002),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박영순(2002).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서울: 한국문화사.
- 박영순(2003), 한국어 교재의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어 교육 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영순(2003),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23.
- 박영순. 1991. 소련의 한국어학과 한국어교육, 그리고 언어이질성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8. 이중언어학회.
- 박용익(1998), 대화분석론. 한국문화사.
- 박용익(2003), 수업 대화의 분석과 말하기 교육, 서울: 도서출판 역락.
- 박의재 · 이정원. 1999. 제2언어 습득론. 한신문화사.
- 박이도(1996), 세계화 시대의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학습. 한국문화사.

- 박재남(2002), 외국어로서 한국어의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원(2001), 한-중 여성화자의 한국어 발음의 실험음성학적 대조분석.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창원(200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에 대한 제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2년도 추계(제18차)학술대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철우(1990), 학생 중심 읽기 지도, 국어교육69-7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방성원(2000), 통합교수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 교육 11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방성원(2002), 한국어 교육용 문법 용어의 표준화 방안. 한국어교육 1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방성원(2003), 고급 교재의 문법 내용 구성 방안, 한국어교육 1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배두본(2000), 외국어 교육과정론, 한국문화사.
- 서종학·이미향(2007), 한국어 교재론, 태학사.
- 여성가족부(2005),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 여성가족부(2005),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첫걸음, 누리 미디어 플러스.
- 여성가족부(2005),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초급, 누리 미디어 플러스.
- 여성가족부(2007),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중급, 국립국어원, 도서출판 역락.
- 연세대 한국어학당(1992), 「한국어」 1-6권, 서울: 연세대 출판부.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 한국어 사전, 서울: 두산동아.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1994), 한국어 4-5,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1995), 한국어 발음,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1998), 한국어 읽기 2-5,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2001), 한국어 1(1판 18쇄),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95), 한국어 발음, 연세대학교 출판부.

- 용재은(2004), 대학 수학 목적의 한국어 읽기·쓰기 교육 방안 연구-학문적 텍스트의 분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민자·김용미·정명수(2007), 가정통신문을 이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회 제16권 3호.
- 이재승(2002),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과정 중심 접근, 교육과학사.
- 이정희(2003),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서울: 박이정.
- 이혜영(2004), 학문 목적 한국어 교과과정 설계 연구, 한국어교육 15-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혜영 외(2005),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장성희(2001),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위한 유치원의 가정통신문 활용의 효과, 유아교육학회 10권 2호.
- 정현선(1998), 인문학으로서의 국어국문학/사회과학으로서의 국어교육 연구: 미디어 교육 연구의 예를 통한 국어교육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어교육연구 5.
- 조항록(2000),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 교육 제11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현용(2000), 한국어 어휘교육연구, 박이정.
- 주옥파(2004),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읽기 교육에 관한 연구 - 논설문 텍스트를 중심으로 -, 한국어교육 15-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최현섭·박태호·이정숙(2000), 구성주의 작문 교수 학습론, 도서출판 박이정.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1998), 한국어 읽기 1-5급, 연세대학교 출판부.
- 한국어세계화재단·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2001), 한국어 초급 읽기·쓰기 실물 교재 개발 보고서, 한국어세계화재단.
- 한길연(2002),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정현(2005),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요구 분석. 석사 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Study about the constructing plan for the reading material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FMIs) by utilizing educational news letters

Ko, Eun-mi

Today's Governmental Ministries and offices have provided the Korean teaching materials for FMIs. These materials are systematized into three grades(beginners, intermediate and high classes). But those materials are placed too much emphasis on speaking and in case of materials for listening are even ruled out. Though the preceding researches have been progressed, the study for the problems on the constructs of reading are not dealt with. To complement these kinds of problems, I propose to utilize the educational news letters as practical teaching materials which are helpful to FMIs' real life.

As we provide the reading materials utilizing educational news letters, FMIs can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educational news letter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What

is more, FMIs will improve their attitude and the ways of bringing up children and obtain knowledge and skills of teachers' role as well as parents', taking the informations related to the education for parents of students which are provided continuously by the institutes such as kindergartens. In addition, reading materials utilizing educational news letters will be used to the fundamental sources of Korean teaching materials.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ir institutes have been planning one of the supporting programs for FMIs. The reading materials utilizing educational news letters will help us raise the efficiency of education for the stud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Keywords : Female Marriage Immigrants(FMIs), educational news letters, Korean teaching, reading materials, multi-cultural families

이 논문은 2009년 1월 14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2월 3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